

예비유아교사의 자기효능감과 교직인성과의 관계에서 문제해결력과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연구

A Study on the Intermediation of Problem Solving and Resilient Elastic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ectiveness and Teaching Personality of Pre-Children's Teachers

송경섭¹

Kyung-Seob Song¹

요약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자기효능감과 교직인성과의 관계에서 문제해결력과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기효능감이 문제해결력을 매개로 교직인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간접효과보다는 자기효능감이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교직인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자기효능감이 문제해결력과 회복탄력성을 매개효과로 교직인성에 미치는 영향은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력, 회복탄력성 모두 교직인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가 교직인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예비유아교사에게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공한다면 자기효능감 향상은 물론 교직인성 함양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핵심어 : 자기효능감, 교직인성, 문제해결력, 회복탄력성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ed effects of problem-solving and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teaching personality for prospective infant teacher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self-efficacy had a higher impact on teachers' personality through recovery elasticity than indirect effects on teachers' personality through problem-solving ability. In conclusion, the effect of self-efficacy on teaching personality as a mediating effect of problem solving and resilience was found to affect teaching personality both self-effectiveness, problem solving ability and recovery elasticity. In particular, we could see that the mediated effects of resilience had the greatest impact on teaching personality. Therefore, if a program is prepared and provided to prospective infant teachers to enhance resilience, it will be effective not only in improving self-efficacy but also in cultivating teaching personality.

Keyword : self-efficacy, teaching personality, problem-solving, resilient elasticity

¹ Department Early childhood Education, Kyung In Women's University, Incheon, Korea [Assistant Professor]
e-mail: skspearl@kiwu.ac.kr

Received(April 20, 2020), Review Result(1st: May 18, 2020, 2nd: August 12, 2020), Accepted(September 4, 2020), Published(September 30, 2020)



© 2020 The Authors. Published by NCIS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licensed under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4.0 International Licens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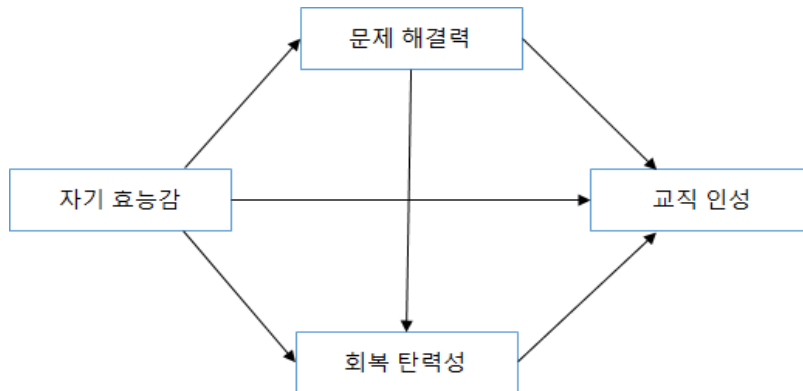
가르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교사들이 갖추어야 할 교직 인성이란 교육에 대한 흥미와 교육관, 신념 등과 같은 정의적인 영역과 함께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성품과 태도 [1]를 이른다. 하지만 이러한 교직인성이 보편적 인성과 다른 점은 교직 선택 이후에 자신의 교직관과 연계되어 형성되며 교원양성과정을 통해 교직 사회의 문화적 테두리 안에서 직무와 연관된 바람직한 성품과 태도로서 형성, 변화될 수 있다는 특성을 갖는다 [2]. 이러한 맥락으로 유아교사의 교직인성이란 유아교사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성품과 태도를 바탕으로 유아교육활동에서 도덕적 가치, 감정, 덕성을 바람직하게 투여하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요구되고 변화될 수 있는 도덕적 성품을 의미한다. 교사가 내면화 한 교직인성의 가치, 헌신, 윤리 등은 학습자와 학부모, 동료교사 및 교사 자신의 계발 등에 영향을 미친다 [3]. 특히 교사에게 요구되는 투철한 직업적 소명의식과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함으로써 이러한 담론을 바탕으로 볼 때 교사는 훌륭한 인성을 가진 인간이자 곧 도덕적 탁월성을 가진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들이 인식한 자기효능감이란 교사 자신이 어떤 결과를 산출하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과 실제행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기능력에 대한 개인적 판단을 말한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주어 자신이 얼마나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행동의 수준이 결정되고 [4], 개인의 행동 변화에 더 강력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더욱이 개인이 갖는 효능감 수준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기대에 따라서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이끌게 되며, 이에 따라 교사의 직무수행 정도도 변할 수 있다 [5]. 일반적으로 자신감과 자아개념, 자아존중감이 자기효능감과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자신감과 자기효능감 개념의 차이에서, 자신감은 일반적인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의 확신 또는 신념의 정도라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능력에 대한 인지적인 판단인 자기효능감과 차이가 있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자아에 대해 개인이 갖고 있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자아개념과 관련 있지만, 자아개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종합적인 개념이며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이다. 반면 자기효능감은 특정한 과제나 영역에 대한 자기의 능력에 관한 평가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자기존중감과도 유사하다.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자기존중감이라면, 자기효능감은 자기의 능력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6]. 이처럼 교사의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생각하고 동기화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데에 영향을 주며 과제수행 능력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과제수행 능력 발달을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7]. 결과적으로 자기효능감은 어떠한 과제에서 한 개인이 성공적인 과제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파악하고 결정하여 개인의 과제수행 능력 신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교사의 학급관리 활동을 볼 때, 높은 효능감을 가진 교사가 낮은 효능감을 가진 교사들보다 학업 활동에 더 많이 할애하고, 어려움이 있는 학습자들을

격려하고 칭찬한다 [8].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교사들은 낮은 효능감을 가진 교사보다 학습자의 생각과 감정에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는 경향을 보이며 교육현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즉 교사의 효능감이 높고 낮음은 교사의 직무 수행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일상에서 부딪히는 문제 상황에 대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한다. 따라서 교사가 지녀야 할 역량 중 문제해결력 또한 연구요인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 문제해결이 어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다른 상황으로 전이가 가능한 일반적인 문제 해결 기능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해결력이란 어떤 특정 문제해결 모형에 대한 습득이 아니라 오히려 주어진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 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어떤 정보와 지식을 어디서 찾아 활용할 것인지, 특정정보와 지식은 어떤 식으로 특정상황에 적용되어지는 것인지, 그 결과 나의 해결안은 어떤 것이 될 것인지와 같은 전반적인 과정을 학습자 스스로 주도하여 이루어가는 능력이라 하였다 [9]. 따라서 문제해결력이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할 때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적용능력, 문제해결과정에서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정보를 찾고 조직하고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이때, 학습과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과제들도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력을 신장시켜준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해결력은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실패의 경험을 새로운 각도에서 해석하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서적, 인지적 탄력성을 갖춘 역량 있는 유아교사 양성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본래 회복 탄력성이란 용어는 심리학에서 개인의 주관적인 안녕감과 정신 건강을 연구할 때 사용해 온 개념이다. 회복탄력성은 인간의 능력 중 환경 변화나 역경에 적응하거나 쉽게 회복하는 능력과 질병이나 충격, 역경에 적응하거나 회복하는 능력 또는 질병이나 충격, 역경으로부터 빨리 회복되어 상황에 알맞게 대처하는 능력이다 [10]. 예비유아교사의 회복탄력성이 중요한 이유는 교사의 개인의 심리적 안녕 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업성취, 학교생활 만족 등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교육의 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비유아교사에게 회복탄력성은 필수적이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차원이 아니라 인간 발달의 가장 기초적인 교육을 전인적인 측면에서 균형 있게 발달하도록 이끄는 과정에는 갈등과 스트레스가 공존한다. 직무수행 중에 느끼는 부정적 정서는 효율적인 교수학습 과정을 방해하며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비유아교사들은 자신의 심리 정서를 조율하고 관리하는 기제를 발달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노력이 중요하며 스스로가 괜찮은 교사임을 느끼고, 감성을 계발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지며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 보는 경험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자기효능감과 교직인성 간의 관계에서 문제해결력과 회복탄력성에 대한 영향력을 매개효과로 살펴봄으로서 예비유아교사들의 역량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자기효능감과 교직인성 간의 관계에서 문제해결력과 회복탄력성에 대한 영향력을 매개효과로 보기 위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2.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예비유아교사 44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1] 연구대상

[Table 1]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구분		빈도	퍼센트	구분		빈도	퍼센트
연령	21.0	16	3.6	예비교사 연령	17.0	2	.5
	22.0	2	.5		18.0	74	16.8
	24.0	1	.2		19.0	94	21.4
	26.0	2	.5		20.0	108	24.5
	27.0	2	.5		21.0	73	16.6
	38.0	1	.2		22.0	28	6.4
	39.0	1	.2		23.0	16	3.6

성별	1.0	25	5.7		24.0	8	1.8
직위	3.0	1	.2		25.0	3	.7
	4.0	6	1.4		26.0	1	.2
	5.0	14	3.2		27.0	2	.5
	6.0	4	.9		28.0	1	.2
경력	2.0	8	1.8		29.0	2	.5
	3.0	11	2.5		30.0	1	.2
	5.0	1	.2		31.0	1	.2
	9.0	1	.2		36.0	1	.2
	14.0	1	.2	예비교사성별	1.0	415	94.3
	26.0	1	.2	재학유형	1.0	380	86.4
	39.0	1	.2		2.0	35	8.0
178.0	1	.2	졸업후취업 희망기관	1.0	381	86.6	
최종학력	1.0	25		5.7	2.0	13	3.0
유치원 유형	1.0	1		.2	3.0	21	4.8
	3.0	7	1.6	결측값		25	5.7
	4.0	17	3.9	총계		440	100.0
결측값		415	94.3				
총계		440	100.0				

2.3 자료분석

본 연구를 위해 설정된 가설 검증을 위해 헤이스(Andrew F. Hayes)가 개발한 PROCESS Macro Version 3.3의 Model 6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11]. PROCESS Macro Model 6의 모형을 적용한 본 연구의 모형은 독립변수로 ‘자기효능감’, 종속변수로 ‘교직인성’을 투입하였다. 그리고 ‘문제해결력’과 ‘회복탄력성’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하였으며, 두 매개변인 간 인과관계는 ‘문제해결력’ → ‘회복탄력성’의 경로를 설정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2.4 신뢰도

본 연구의 변인인 자기효능감, 교직인성, 문제해결력,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에 대한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표 2] 신뢰도
[Table 2] Reliability

변인명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자기효능감	자기조절 효능감	1, 2, 3, 4, 5, 6, 7	7문항	.794
	과제 난이도 선호	8*, 9*, 10, 11, 12	5문항	.708
	전체		12문항	.816
교직인성	소명 의식	1, 2, 3, 4, 5	5문항	.905
	학생에 대한 열정	6, 7, 8, 9	4문항	.913
	교육적 진념	10, 11, 12, 13	4문항	.929

	전체		13문항	.948
문제해결력	문제해결 자신감	1, 2, 3*, 4, 5, 6*, 7	7문항	.809
	접근 회피 양식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0문항	.790
	개인 통제력	18*, 19*, 20*	3문항	.810
	전체		20문항	.890
회복탄력성	통제성	1, 2, 3, 4	4문항	.854
	사회성	5, 6,, 7, 8	4문항	.884
	긍정성	9, 10, 11, 12	4문항	.859
	전체		12문항	.925

* 은 역채점 문항을 의미함.

2.5 기술통계 및 정규분포

측정 변인의 기술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정규분포 가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이때에 왜도의 절댓값이 3이하이고, 첨도의 절댓값이 10이하이면, 변인의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있다 [12].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변인의 전체 평균은 4.19~5.03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변인의 왜도는 -.48~.65, 첨도는 -.53~.59로 조사되어 정규분포를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표 3]과 같다.

[표 3] 기술통계 및 정규분포

[Table 3] Technical statistics & Regular distribution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자기효능감	440	4.19	.32	.65	.59
교직인성	440	5.03	.69	-.48	-.23
문제해결력	440	4.60	.54	.46	-.09
회복탄력성	440	4.61	.65	.41	-.53
전체	440	4.19~5.03	.32~.69	-.48~.65	-.53~.59

2.6 상관분석

[표 4]의 상관분석에서 나타나듯이 자기 효능감과 ‘교직인성’은 .48의 정적 상관($p<.001$), ‘문제 해결력’은 .35의 정적 상관($p<.001$), ‘회복탄력성’은 .66의 정적 상관($p<.001$)을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교직 인성과 ‘문제해결력’은 .44의 정적 상관($p<.001$), ‘회복탄력성’은 .65의 정적 상관($p<.001$)을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문제 해결력과 ‘회복탄력성’은 .59의 정적 상관($p<.001$)을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4] 상관분석

[Table 4] Correlation

구분	자기 효능감	교직 인성	문제 해결력	회복 탄력성
자기 효능감	1			
교직 인성	.48***	1		
문제 해결력	.35***	.44***	1	
회복 탄력성	.66***	.65***	.59***	1

*** p<.001

3. 연구결과

3.1 자기효능감이 문제 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모형 검증을 위한 첫 번째 과정으로 독립변인(자기효능감)이 매개변인1(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기효능감은 문제해결력을 11.7%설명하며 (F=57.858, p<.001), .575의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7.606, p<.001).

[표 5] 자기효능감이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Table 5] Effect of Self-Efficiency on Problem Solving

구분	coeff	β	SE	t	R2	F
constant	2.190[1.567~2.814]	.000	.317	6.904***	.117	57.858***
자기 효능감	.575[.426~.724]	.342	.076	7.606***		

*** p<.001

3.2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력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모형 검증을 위한 두 번째 과정으로 독립변인(자기효능감)과 매개변인1(문제해결력)이 매개변인2(회복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표 6]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력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Table 6] Effects of Self-Efficiency and Problem Solving on Resilient Elasticity

구분	coeff	β	SE	t	R2	F
constant	-2.023[-2.579~1.468]	.000	.283	-7.160***	.570	289.335***
자기 효능감	1.041[.907~1.175]	.511	.068	15.301***		
문제 해결력	.494[.415~.574]	.408	.041	12.212***		

*** p<.001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기효능감과 문제 해결력은 회복탄력성을 57.0%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289.335, p<.001$). 자기효능감은 회복 탄력성에 1.041의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t=15.301, p<.001$), 문제해결력은 회복 탄력성에 .494의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12.212, p<.001$).

3.3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력, 회복탄력성이 교직인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모형 검증을 위한 마지막과정으로 독립변인(자기효능감)과 매개변인1(문제해결력), 그리고 매개변인2(회복탄력성)가 종속변인(교직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기 효능감과 문제 해결력, 그리고 회복탄력성은 교직 인성을 49.0%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139.279, p<.001$). 자기효능감은 교직인성에 .276의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t=2.868, p<.01$), 문제해결력은 교직인성에 .138의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2.572, p<.05$). 그리고 회복 탄력성은 교직인성에 .566의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10.348, p<.001$).

[표 7]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력, 회복탄력성이 교직인성에 미치는 영향

[Table 7] The influence of self-effectiveness, problem solving, and resilient elasticity on teaching personality

구분	coeff	β	SE	t	R2	F
constant	.639[-.031~1.310]	.000	.341	1.873	.490	139.279***
자기효능감	.276[.087~.466]	.130	.096	2.868**		
문제해결력	.138[.032~.243]	.109	.054	2.572*		
회복탄력성	.566[.459~.673]	.541	.055	10.348***		

* $p<.05$, ** $p<.01$, *** $p<.001$

3.4 간접효과 검증

연구모형의 간접효과를 확인한 결과 [표 8]과 같으며 .829($\beta=.389$)의 총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95% CI=[.693~.9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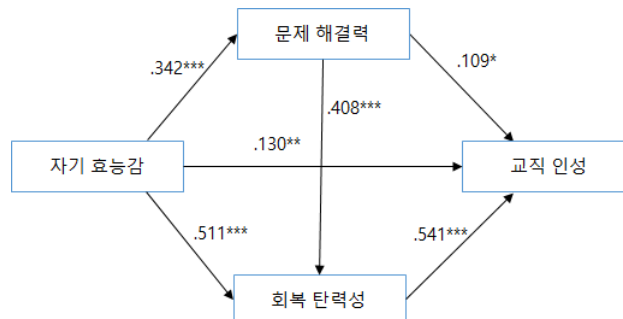
[표 8] 간접효과

[Table 8] indirect eff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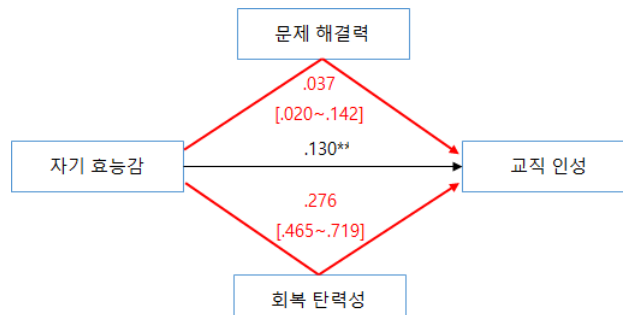
간접효과	Indirect effect	β	BootSE
자기효능감→문제해결력→교직인성	.079[.020~.142]*	.037	.031
자기효능감→회복탄력성→교직인성	.589[.465~.719]*	.276	.065
자기효능감→문제해결력→회복탄력성→교직인성	.161[.100~.238]*	.075	.035
총 간접효과	.829[.693~.969]*	.389	.071

*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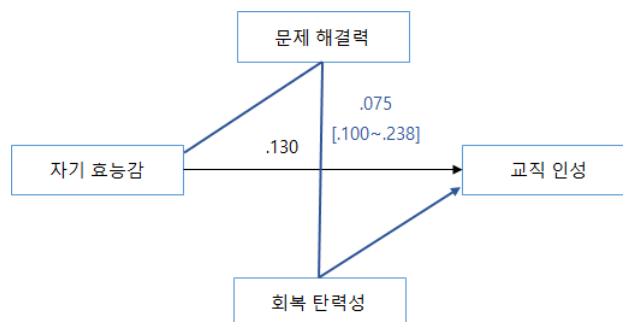
세부적인 간접효과를 확인한 결과, 자기효능감→문제해결력→교직인성의 개별간접효과는 .079($\beta = .037$)로 확인되었고(95% CI=[.020~.142]), 자기효능감→회복탄력성→교직인성의 개별간접효과는 .589($\beta = .276$)로 확인되었다(95% CI=[.465~.719]). 또한, 자기효능감→문제해결력→회복탄력성→교직인성으로의 다중 간접 효과는 .161($\beta = .075$)로 확인되었다(95% CI=[.100~.238]).



[그림 2] 연구모형의 직접효과
[Fig. 2] Direct Effect of a Study Model



[그림 3]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Fig. 3] Mediation Effect of a Study Model



[그림 4] 연구모형의 다중매개효과
[Fig. 4] Multiple Mediated Effects of the Study Model

4. 결론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자기효능감이 문제해결력과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교직 인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자기효능감에 관한 특성과 교직인성간의 영향 경로에 대해 살펴 보았다.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진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유아교사의 자기효능감은 교직인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기조절 능력과 과제 난이도 선호요인이 높게 나왔으며 이것은 교직인성과도 연결이 되어 교직에 대한 소명 의식과 학생에 대한 열정과 교육적 신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교직에 대한 소명 의식과 학생에 대한 열정이 높았으며 교직에 대한 교육적 신념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예비유아교사의 자기효능감이 문제해결력과 회복탄력성의 두 가지 매개요인을 분석한 결과 두 매개요인 모두 교직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제해결력과 회복탄력성의 매개 효과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교직에 대한 의식과 열정 신념은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문제에 대한 해결 자신감이 높았으며 접근 회피 양식과 개인 통제력도 뛰어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문제해결력과 회복탄력성 두 가지 매개요인 중 회복탄력성 매개요인이 문제해결력 매개요인보다 더 많이 교직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유아교사의 문제해결력에 포함된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이나 개인 통제력의 매개효과보다는 회복탄력성의 통제성, 사회성, 긍정성의 매개요인이 오히려 교직인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예비유아교사의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력, 회복탄력성이 교직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 매개효과 연구모형의 간접효과를 확인한 결과 전체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확인결과 자기효능감이 문제해결력을 매개로 교직인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개별 간접효과보다는 자기효능감이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교직인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개별간접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이 문제해결력과 회복탄력성을 매개효과로 교직인성에 나타나는 영향에 대한 다중 간접효과도 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예비유아교사의 자기효능감이 문제해결력과 회복탄력성을 매개효과로 교직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력, 회복탄력성 모두 교직인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가 교직인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예비유아교사에게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꾸준히 제공한다면 자기효능감은 물론 교직인성 함양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차후의 연구에는 문제해결력과 회복탄력성 증진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각각의 하위요인들에 대해 세부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바이다.

References

- [1] K. C. Hong, "A Application Study on Test of Aptitude for Primary School Teacher : TAPST",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vol. 22, no.1, August 2006, pp. 113-135.
- [2] Y. J. Kim, "A Study on the Personality Aptitude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Journal of 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vol. 34, no.17, June 1999, pp. 429-458.
- [3] H. Y. Hwang, "The Trends of Research on Character Education in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vol. 32, no.1, January 2016, pp. 139-158, doi: 10.14333/KJTE.2016.32.1.139.
- [4] J. R. Kim, "The Actual Conditions of Emotional Labor and the Relations Between Emotional Labor Level and Self-Efficacy in kindergarten Teachers",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okpo Nationa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15.
- [5] H. J. Woo,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elf-efficacy Scale for Childre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 12, no. 2, December 1994, pp. 60-67.
- [6] S. H. Choi, "Relationship of Self-Efficacy to Classroom Management Efficiency in Secondary Teacher",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08.
- [7] S. B. Lee, S. H. Hong, H. S. Hwang, "Influence of the Creative Competency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Self - efficacy and Teaching Flow on Happiness in Early Childhood Teacher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22, no.4, December 2015, pp.345-367.
- [8] J. I. An,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the variables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self-leadership, teacher efficacy, learning organization cultur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teacher's competency as a learning-facilitator", Doctoral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Lifelong Education, Soongsi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14.
- [9] I. A. Kang, "Theoretical Review of Information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vol.14, No.1, June 1998, pp.23-38.
- [10] S. B. Choi, "The Relationship of Resilience, Teacher's 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of Children's Teacher",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Woo Suk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16.
- [11] Andrew F. Hayes,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 Guilford Press, 2018.
- [12] Rex B. Kline,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ew York : Guilford Press, 2016.